

‘학교체육이 제대로 뿌리내려야 광주체육 미래 있다’

市체육회·市교육청, 상생 발전 ‘맞손’

이상동 체육회장·이정선 교육감
광주체육 발전 다양한 의견 공유

광주시체육회가 학교체육시설 개방, 학생선수 육성 및 운동부 연계육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에 나섰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양 기관은 학생선수의 인권, 학습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체육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학교 체육관 또는 운동장은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체육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달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엘리트선수 조기 발굴을 목표로 공동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광주시체육회에서 학교체육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이러 ‘학교체육이 제대로 뿌리내려야 광주체육의 미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전국(소년) 체육대회 메달 획득 시 감독교사 및 지도자 등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연계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일반부에 이르기까지 연계육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1개

종목 운동부 육성 시 인근 학교별 연계육성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생선수 육성 및 운동부 연계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광주체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학교체육이 기반이 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등 선순환 시스템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중기자



A페퍼스 배구단이 지난달 29일 일본 가와사키시 NEC 체육관에서 NEC 레드로켓스 구단과 평가전을 끝낸 뒤 NEC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페퍼스 제공>

일본 전훈 마우리시페퍼스, 중위권 도약 해법은...

스피드 접목 ‘토탈 배구’



페퍼 저축은

행 A페퍼스가 창단 첫 해외 전지훈련에서 중위권 도약의 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동료들과 합을 많이 맞춰봤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주장 문슬기는 “발가락 수술 이후 재활에 전념한 탓에 경기에 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면서 “다행히 구단의 지원으로 불안이 해소됐고, 귀한 경험을 쌓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실 감독은 “선수들이 일본 배구를 몸소 체험해보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향상된 것이 고무적이다. 특히 배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면서 “KOVO컵에서 광주시민과 팬들에게 일본 전지훈련의 효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전훈을 마치고 돌아온 AI 페퍼스 선수단은 이틀간 휴식을 갖고 오는 13일부터 순천에서 열리는 2022 KOVO컵을 대비한 국내 훈련을 재개한다. /박희중기자

AI페퍼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일본 가와사키시 NEC 체육관에서 열린 NEC 레드로켓스 구단과의 합동 훈련과 사이타마 아게오 메디스, 히타치 리바레 등 일본 V리그 디비전 1팀들과 3차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후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AI페퍼스는 이번 전지훈련 기간 일본 특유의 빠른 배구를 직접 보고 몸으로 느꼈다. 특히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에이스는 없지만 전원이 공격에 가담하는 배구, 즉 ‘토탈 배구’를 팀 컬러에 접목시키기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장 이한비는 “일본팀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플레이하는지를 많이 느끼고



최지만 ‘휴스턴행?’
탬파베이, 트레이드 논의

미국프로야구(MLB) 탬파베이 레이스 한국인 내야수 최지만(31)의 이름이 트레이드설에 등장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ESPN의 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 캐스터인 패트릭 크레이틴은 탬파베이 구단과 휴스턴 에스트로스 구단이 최지만과 휴스턴의 우완 투수 호세 우르키디(27) 등 여러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했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1루수를 필요로 하는 휴스턴 구단이 남아도는 선발 투수를 탬파베이에 트레이드 카드로 제시했다는 게 보도의 뼈대다.

탬파베이는 1루수와 지명 타자 요원이 넘쳐 휴스턴과 트레이드를 할 적격인 팀이다.

크레이틴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려면 최지만은 1년 반, 우르키디는 3년 반이나 남았다는 점을 들어 둘을 맞추는 게 탬파베이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좌타자 최지만은 올 시즌 타율 0.261에 홈런 8개, 타점 44개를 수확했다. 왼손 투수가 나오면 벤치를 지키는 제한적인 출전에도 최지만은 팀 내 홈런 3위, 타점 2위를 제 몫을 한다.

트레이드 논의가 종결됐는지, 현재 진행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지만과 우르키디의 유망주를 추가로 얻는 방식으로 두 구단이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MLB 트레이드 마감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6시(한국시간 3일 오전 7시)다. /연합뉴스



광주FC 헤이스가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위 대전과의 경기에서 친근같은 결승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독주, 광주FC 가는 길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광주FC, 헤이스 결승골 대전 제압...승점 14점차 벌러



프로축구 K리그2 선두 광주FC가 2위 대전하나시티즌의 추격을 따돌리며 다이나믹 승격에 청신호를 밝혔다.

광주는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과 K리그2 2022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헤이스의 친근같은 결승 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최근 6연속 무패(3승 3무)를 이어가는 동시에 승점 58점으로 두 경기를 더 치른 2위 대전(승점 44)과의 격차를 14점으로 벌렸다.

광주는 초반부터 대전과 플레이를 펼쳤다. 전반 10분 산드로의 헤더로 포문을 열었다.

전반 39분 이민기가 전반 39분 조유민이 걷어낸 볼을 오른발 슈팅으로 이었으나 골대 구석을 살짝 벗어났다.

광주가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43분 이상기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산드로가 헤더로 떨구었고, 이를 헤이스가 슈팅으로 연결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헤이스의 시즌 9호골. 지난달 광주 유니폼을 입은 산드로는 K리그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세를 탄 광주는 전반 추가시간 산드로 헤더 패스에 엄지성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전 광주는 자신감을 찾은 산드로

를 중심으로 계속 공격했다. 산드로가 후반 21분 시도한 오른발 프리킥은 크로스바 위를 살짝 넘어섰다.

이후 대전이 윌리안을 중심으로 반격하자 흐름을 끊기 위해 후반 31분 두현석과 하승운을 투입했다.

광주는 후반 43분 정효연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살짝 빔나갔다.

경기 막판 광주는 김중우와 김현훈을 투입하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추가시간 엄지성의 프리킥은 골문을 살짝 빔겨갔지만, 대전의 공세를 막아내며 1대0 승리로 웃었다.

한편, 이날 경기가 열린 광주축구전용구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등 올 시즌 최다 홈 관중인 3천326명의 팬들이 찾아 환한 응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탤다. /박희중기자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 ‘월드랭킹 1위’ 도약

올해 꾸준히 국제 대회를 치르고, 뛰어난 성과를 낸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하는 ‘월드랭킹 1위’로 올라섰다.

단일 대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우상혁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활약을 평가하는 ‘월드랭킹’에

서 한국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각 종목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했다.

7월26일까지 경기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남자 높이뛰기 월드랭킹에서 우

상혁은 오랫동안 선두를 지킨 장마르코 벨라피(30·이탈리아)를 제치고, 1위로 도약했다.

한편, 대한육상연맹은 3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우상혁 포상 수여식을 연다.

대한육상연맹 경기력향상금(포상)

규정에서 명시한 세계육상선수권 우승 2위 상금은 5천만원이다.

“2022년 가장 큰 숙제”였던 세계육상선수권을 은빛으로 마무리한 우상혁은 10일 모나코,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한다.

이후 9월7-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2022년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시리즈에 나서 ‘2022시즌 남자 높이뛰기 최종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대구 달빛스포츠교류에 참가한 대구선수단이 환영 행사에 함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2038 하계AG 공동유치 ‘함께 한결음 더’

광주-대구 달빛스포츠교류 성료

광주-대구 260여 명의 선수단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광주-대구 달빛스포츠교류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대구 달빛스포츠교류대회’는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된 후 이듬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고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재개됐다.

지난달 28일 광주에 도착한 대구선수단은 환영 행사를 마친 후 무등산 분청사기의 역사를 공유하고 평촌도에공방을 방문해 도자기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문화탐방 일정을 진행했다.

29일에는 축구(염주종합체육관), 탁구(동림다목적체육관), 테니스(진월국체테니스장), 펜싱(국민생활관 펜싱장) 등 4개 종목 경기를 통해 스포츠 우호 교류를 다졌다. /박희중기자

대구선수단을 위한 짝꿍 이벤트도 진행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8일 환영 만찬에서 광주양공을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를 초청해 사인회 및 기념촬영(포토존) 행사를 가졌다.

한편, 달빛스포츠교류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교류대회를 통해 2038 하계아시아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광주와 대구의 협력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감정을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파리올림픽 축구 관행 깨고
여자 결승전으로 대미 장식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축구 경기의 피날레는 역대 처음으로 ‘여자 결승전’이 장식한다.

FIFA는 지난달 29일 파리올림픽 남녀 축구 경기 일시 및 장소를 확정해 발표했다. 남녀를 합쳐 총 58경기를 치르는 파리올림픽 축구 종목은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10일까지 프랑스 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눈에 띄는 것은 8월10일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축구 종목 마지막 경기 여자부 결승전이라는 점이다. /연합뉴스

올림픽에서 여자 결승전이 축구 종목 마지막 경기로 치러지는 것은 대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남자부 금메달 결정전이 맨 마지막 날 개최됐다.

파리에서 남자 축구 결승전은 여자부 결승 하루 전날인 8월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올림픽 축구 종목에는 남자부 16개국, 여자부 12개국이 참가한다. 남자부는 팀당 연령 제한이 없는 와일드카드 3명씩을 제외하고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한다. 여자부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합뉴스